

밀레 'KIMES 2009' 참가, 의료 살균세척기 공개

- 대형병원 및 치과, 연구소, 수술실 전용 중소형 세척기 등 선배
- 라인업 강화를 통해 치과나 중소형 병원 등 공략

독일 명품가전업체 밀레(밀레코리아 대표 안규문. www.miele.co.kr)는 오는 12일부터 4일간 삼성동 코엑스(COEX)에서 개최되는 제25회 국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회 'KIMES 2009'에 참가해 병원 및 실험실용 전문 살균세척기를 선보인다.

전시회를 통해 밀레는 최근 강남성모병원에 공급한 대형살균세척기(모델명 : PG8528)를 비롯해 치과(G7881)나 연구소(G7883), 수술실(G7836) 전용 중소형 살균세척기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.

강남성모병원에 공급한 대형살균세척기 'PG8528'는 2개의 강력한 순환펌프를 장착해 많은 양의 각종 수술용 도구들을 단시간에 빨리 세척할 수 있고, 옥시바리오(OXIVARIO), 오도바리오(ORTHOVARIO) 등의 첨단 프로그램을 탑재해 수술용 도구나 실험실용 기자재를 완벽하게 살균, 세척해주는 것이 특징이다.

또 고온의 93도에서 10분간 열소독하는 후레쉬워터시스템(Fresh Water System)을 장착해 곰팡이와 바이러스 등을 말끔히 제거해 주며, 세척기에 장착된 고밀도의 헤파(HEPA) 필터는 세척통 내부로 불순물이 유입되는 것을 99.92% 차단시켜 세척과정에서 살균기구들이 재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.

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스크린을 통해 작동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작동이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.

PG8528는 현재 강남성모병원을 비롯해 여의도 성모병원과 순천향대학교병원 등 국내 유수의 병원에 설치돼 사용 중에 있으며,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의 대형병원과 제약회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.

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중소형 살균세척기는 치과나 수술실, 연구소 등 사용장소에 특화된 제품으로, 세척력은 물론 사용편의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다.

밀레코리아는 중소형 살균세척기 출시를 통해 대형병원 외에도 치과나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1899년 설립된 밀레는 드럼세탁기, 식기세척기, 냉장고 등 주방가전 전문업체로, 1966년부터 의료 및 실험실용 세척기를 개발 및 생산해 왔다.